■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71-199.
http://doi.org/10.17948/kcs.2022..95.171

〈태원지(太原誌)〉의 일주(一周) 상상력과 다원(多元)의 세계관*

—고소설의 사유 실험에 대한 단상을 더하여—

김수연(金秀燕)**

목 차

1. 시작하며
2. 숫자 감각에 의한 서사 구성과 지리 상상
3. 일주(一周)의 상상력과 다원(多元)의 세계관
4. 〈태원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소설의 사유 실험
5. 마치며

국문초록

조선후기 소설 〈태원지〉 속 유교적 사유는 비-유교적 사유와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한다. 유교의 '천명(天命)' 개념이 표층 서사를 관통하지만, 구체적 세계 구상의 바탕에는 18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의 사유 실험에서 주목한 서양의 항해 일주, 고대의 대구주설, 청나라의 고증학적 천문수학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운동의 수용은 숫자 감각에 의한 서사 구성과 지리 상상, 일주의 상상력과 다원의 세계관으로 구현된다.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2-0127).
**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태원지〉의 숫자 감각은 인물과 지리의 구체화에 기여하여 허구적 캐릭터와 가상세계에 논리적 실감성(實感性)을 제공한다. 일주의 상상력은 항해 도중 동해→서해의 전위(轉位)로 장면화되며 지구지원(地球地圓)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흔적을 드러냄으로써, 허구 작품을 논리적 세계로 인식하게 한다. 〈태원지〉의 일주는 동일 공간으로의 회귀를 거부하고 질적으로 다른 유사 공간으로의 이동을 상상한다. 그렇게 하여 도착한 태원은 중원의 대칭적 다원 세계이자, 역사적·문명적 신화 시대로 재귀한 '태초의 중원'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태원지〉에는 조선후기에 경합하는 '지식장'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지적 운동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서사적 사유 실험의 태도도 발견된다. 이것은 조선후기 문화틀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고, 소설이 역동하는 지적 환경에 열린 자세로 동참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소설은 시대의 문화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기존의 문화적 교양에 일방적으로 압도당하지 않는다. 소설은 자기 시대의 문화틀이 재구성되는 현장에 참여하며, 확장성이 높은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사유를 고민하는 실험장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태원지(太原誌)〉, 일주(一周)의 상상력, 다원(多元)의 세계관, 숫자 감각, 상상 지리, 논리적 허구, 역사적 재귀(再歸), 사유 실험.

1. 시작하며

문학 작품의 상상력은 작가가 나고 자란 문화권의 교양에 영향받는다. 바슐라르는 이것을 "문화 콤플렉스"라는 말로 정의했다.[1]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문화적 교양이 상상력의 발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나타난 세계구상은 작가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지적 사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희병은 이것을 "문화틀"로 규정하고, 조선 지식인이 공유하는 문화틀에는 '유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했다.[2]

작품을 둘러싼 시대와 장르에 대한 '교양'은 구체적 작품을 이해하는 데 선명한 기준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특정한 인상이 문화적

1)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38면.
2) 박희병은 조선 유자(사대부)가 공유하는 생활과 문화의식을 '문화틀'로 설명했다.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5-69면.

교양을 구성하는 경우, 복합적 작품 세계가 단일한 하나로 추상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연구자의 독서는 추상화된 '하나'가 가리고 있을지 모를 파편과 흔적을 찾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작품 중 하나가 소설 〈태원지(太原誌)〉이다. 〈태원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조선후기 특정 문화틀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태원지〉가 창작·향유된 18-19세기를 이해할 때 작동하는 문화틀은 주자학에 기반을 둔 중화주의이다. 특히 이족(夷族) 국가인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하는 시기에, 문사들은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숭명배청의 중화사상과 그것을 자기화한 소중화사상을 강화했다.[3] 중화의 강조와 이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천명(天命)'이라는 개념이다. 작품의 문면에 드러나는 '천명'은 〈태원지〉를 중화주의 관점으로 읽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태원지〉는 원나라 시절[4] 중원 사람 임성이 천명을 받고, 항해하여 동쪽의 태원으로 가서 건국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1966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2018년에는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5] 〈태원지〉 연구를 본격화한 임치균은 〈태원지〉가 해양 탐험담과 건국담을 조합하고 천명을 모티프로 하여, 누구든지 어디든지 "천명이 있어야만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오랑캐인 청나라가 현재 이곳에 존립하는 것 자체가 천명임을 증명하는

3) 박희병, 위의 책, 48-49면.

4) 〈태원지〉는 강문종 소장 한문본과 2종의 한글본(장서각본, 연세대본)이 있다. 홍현성은 장서각본의 '지정 을축'에 대해 원나라 지정 연간에 을축이 없으므로 을축은 을유의 오류이고, 지정 을유를 기준으로 할 때 임성이 원나라 조정에 저항하여 중원을 떠난 갑진(甲辰)은 1364년이며, 작가는 "지정 말 원에 대항한 봉기가 중원 곳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의식하고, 같은 시기 항원세력의 하나인 주원장도 천명을 받았으므로 또 다른 천명을 받은 임성이 중원을 떠나도록 설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302-304면. 그런데 한문본은 해당 부분이 '至元 乙酉'로 표기되어 있다. 국문본은 을축뿐 아니라 지정도 오류인 것이다. 지정이 지원으로 확인되면서, 지정 연간의 역사를 기반으로 소설의 시대와 사건을 분석한 기존의 해석들에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원 을유는 원나라 전성기인 쿠빌라이 칸의 시대이다. 임치균 외 역해, 『역주 태원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14면.

5) 김인회, 「〈태원지〉 연구사」, 임치균 외, 『〈태원지〉의 종합적 연구』, 역락, 2018, 25-46면. 그동안의 연구논문은 20여 편이며, 연구분야는 국적, 창작 연대와 이본, 작품론, 한·중 비교, 콘텐츠화 등으로 나뉜다.

논리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6] 이후 연구들도 대체로 이 주장을 이어가며 논점의 강화와 변주를 꾀하였다.[7] 하위 분야는 다르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관통하는 큰 틀은 청나라가 지배했던 조선후기 사대부의 대청의식과 중화의식의 향방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주자학적 세계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태원지〉에는 주자학적 세계인식 외에도 비-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상상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의 작품 안에서 유교와 비-유교적 사유가 상호구성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숫자로 설계하는 감각을 기반으로, 둥근 세상을 한 바퀴 도는 일주(一周)의 상상력과 인식의 경계 밖에 '태초의 중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다원(多元)의 세계관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유교적 문화틀" 안에서는 특이치(特異値, outlier)에 해당하면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시도된 사유 실험을 소설적으로 공유한 흔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틀과 소설적 허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2. 숫자 감각에 의한 서사 구성과 지리 상상

2.1. 숫자 정보를 활용한 인물의 형상화

〈태원지〉는 한문본을 기준으로 총 25전(傳) 138면의 분량이다.[8] 내용은 1전(傳) 임성의 탄생과 성장, 2전(傳) 임성의 대사(大事) 도모와 의형제 결의, 3전(傳)-13전(傳) 항해 과정, 14전(傳)-25전(傳) 태원의 정벌과 대홍국(大洪國)

6)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78면.
7) 이후 논의는 첫째, 중국에 대한 상대적 공간 인식(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24-129면), 둘째, 기존의 화이질서에 어긋나는 세계의 형상화(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311-315면), 셋째, 중화주의의 균열과 조선 중화주의의 표현(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태원지〉—」, 『고소설연구』 33, 2012), 넷째, 중화주의의 확대 모색과 탈중화의 천명 확인(오화, 「〈태원지〉와 〈경화연〉의 해양 탐험담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2014; 「한중 고전소설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태원지〉와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를 대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7)으로 정리할 수 있다.
8) 한문본 원문은 임치균 외 역해, 위의 책, 220-494면에 영인되어 있다.

의 건국으로 전개된다. 공간은 '육지-바다-육지'로 이동하는데, 구체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육지	바다	육지
中原 (金陵→赤壁→吳江)	①섬(海賊)→②영도(靈島, 應天大將軍)→③섬(子靈洞, 白鼠)→④섬(蓮花峯, 石壁)→⑤섬(白蛇, 火蟒)→⑥섬(東海神若)→⑦섬(妖猴)→⑧여인국(九尾黃狐)→⑨섬(金色蜈蚣)→⑩바다(玉璽)→⑪섬(西海廣德王)→⑫귀도(鬼島, 海中雜鬼)→⑫″귀도(制天大皇, 制地大皇)	太原 (靑陵縣→道州→西安國→金國→土國→木・水・火國)

〈태원지〉는 18세기까지의 소설에서는 보기 드물게,[9] 적극적으로 숫자를 활용한다. 도입부터 결말까지 숫자 정보와 이미지를 사용해 인물을 형상화하고 지리 공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숫자는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허구의 이야기를 이성적・합리적 논리로 전위(轉位)시킨다.[10] 특히 〈태원지〉는 도입에서 서사의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여, 초기 인지를 강하게 형성하며 독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 최초의 정보를 중시하는 일반적 인지 경향에 따라,[11] 초반에 형성된 신뢰가 이후 진행되는 서사 수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 장면을 보면, 임위(林偉)와 유씨(劉氏)가 북고산(北固山)에서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꾼 날이 "지원(至元) 을유(乙酉) 춘정월(春正月) 신묘(辛卯)"이고, 임성(林成)을 낳은 때가 10월 16일 밤이다.[12] 『고려사』에 따르면 지원

9) 강문종은 필사기를 근거로 한문본 〈태원지〉의 성립시기를 18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강문종, 「한문본 〈태원지〉 연구」,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152-154면.

10) 대표적인 사례가 빅뱅 이론이다. 현재는 엄밀 과학의 핵심인 빅뱅도 수식(數式)으로 설명되기 전까지는 과학적 우주생성론에 포함될 수 없는, 신화적 이야기로 여겨졌다. 정일권, 「빅뱅 우주론, 양자물리학, 그리고 문화의 기원—존 폴킹혼과 르네 지라르 이론의 빛으로」, 『한국개혁신학』 44, 2014, 178면.

11) 홍명희, 앞의 책, 63면.

12) 한문본 〈태원지〉, 1-2면, "此時乃至元乙酉春正月辛卯也 (…) 自此果有娠, 以至於十月十六日之夜, 果生一奇男, 乃成也."

을유는 1285년이고 춘정월 신묘는 1월 18일이다.[13] 임성을 회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39주로서, 일반적인 임신 기간에 들어맞는다. 이러한 방식은 대개의 소설이 "옥기린이 품에 드는 꿈을 꾸니, 이날 정부인이 아들을 낳았다."[14]거나 "그달부터 태기 있어 열 달만에 한 옥동자를 낳으니"[15]와 같은 관습화된 표현과 구분된다. 숫자 정보와 연결되는 간지와 일자를 사용해 인물의 탄생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품이 논리성과 역사성을 구현한다는 초기 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태원지〉는 작품 전반에 걸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숫자 이미지로 제공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임성의 실종 소식에 임위 부부가 '나이 65세에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다'고 탄식한 것(3傳), 이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 '5년 뒤에 큰 경사가 있고, 70세부터 90세까지 비할 데 없는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 임성이 배를 타고 떠난 때가 갑진년(1304) 3월이고 20세였다는 것, 임성이 태원 5국을 정벌하고 황제가 된 것은 무신년(1308) 6월 14일로서 중국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라는 것, 황제가 된 임성이 부모가 71년을 곤궁하게 지냈다고 슬퍼하는 것[16]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품 말미에서 임성이 부모의 나이가 71세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자신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작품 초반 신인의 예언 속 시간과 호응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서사의 진행 시간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 외에 인물들의 신체 정보도 숫자를 통해 제시된다. 〈태원지〉는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인물에 대해 숫자를 활용한 신체 정보를 소개한다. 임성과 임응이 15세에 종황, 조평, 하승을 만나 망형지우(亡兄之友)를 맺는 장면을 보면, 서사와 긴밀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모든 인물의

13) 『고려사』 충렬왕 11년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국도본 〈창선감의록〉, "嘉靖二十三年, 春二月, 公夢玉獜入懷. 是日鄭夫人生子."
15)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그달붓허 퇴긔 잇셔 십삭만의 일기 옥동을 싱ᄒᆞ니" 이윤석 교주, 『홍길동전』,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14, 204면.
16) 한문본 〈태원지〉 136면, "然顧我父母一生, 窮困滋甚, 冬暖而愁寒, 年豊而苦飢, 七十有一年, 則此非小子之晝夜悲傷造次難忘者乎."

키를 언급하는 것이다. 임성은 8척(尺), 임응은 1장(丈), 종황은 8척(尺), 조평은 7척(尺) 5촌(寸), 하승은 9척(尺)이다. 이들이 천명에 따라 중원을 떠나는 장면에서 인물의 나이를 제시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임성과 임응과 종황이 20세, 하승과 조평이 25세, 양관이 37세, 양정이 19세, 양경이 17세로 나온다.

인물의 용력도 마찬가지이다. 임성 일행이 각자의 무기를 마련할 때 무기의 무게를 병기하는데, 종황의 일척반룡검(一尺攀龍劍)이 300근(斤), 하승의 일월대구도(日月大口刀)가 150근, 조평의 후월철추(吼月鐵椎)는 150근, 양관의 개산대부(開山大斧)는 150근, 양정의 신망모(神芒矛)는 100근, 양경의 명악모(明鍔矛)는 100근이다(2傳). 임성의 삼척등룡검(三尺騰龍劍)과 임응의 음양신명봉(陰陽神明鋒)에는 무게를 적지 않았지만, 일척반룡검과 대비하면 삼척등룡검은 900근이 될 것을 알 수 있고, 임응은 일행 중 최고 무장이고 키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의 음양신명봉이 종황의 일척반룡검을 뛰어넘는 무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인물 소개는 반동인물에 해당하는 캐릭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7]

현실적 존재뿐 아니라 허구적이고 초자연적인 대상의 정보도 숫자로 제시된다. 항해 과정에서 만난 신적 존재 응천대장군은 키가 1장(丈) 5척(尺)이고, 제천대황(制天大皇)과 제지대황(制地大皇)은 3척(尺) 남짓이다. ⑨섬에서 만난 금빛 지네 요괴[金色蜈蚣]는 길이가 10여 장(丈)이고, ⑩바다에서 얻은 옥새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4촌(寸)이며, 태원 해안에 나타난 용마(龍馬)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2장(丈) 3척(尺), 발부터 등까지 9척(尺) 4촌(寸)이다.

서사적으로 필수적이거나 긴밀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숫자를 통해 하나하나 제시하는 방식은 인물의 용력 차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신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성하여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사실적 인상을 상상하도록 돕는다. 또한 다소 과장된 인물 묘사라도 논리적 이해 속에서 수용될 수 있게 하고, 허구적 존재에 실감성(實感性)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현실성

17) 서안국 장군 방상은 키가 1장(丈)이 넘고 300근 철퇴를 쓰며, 금국 장군 여영경은 키가 1장(丈)이고 300근 철창과 5석(石) 무게의 활을 사용한다.

과 실재성을 보완한다고 하겠다.

2.2. 숫자 이미지를 운용한 상상 지리의 구체화

〈태원지〉의 숫자 감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상상 지리의 구체화 과정이다. 〈태원지〉는 지리 공간의 대부분이 상상 지리로 구성된다. 항해 과정에서 만나는 도서(島嶼)와 가상의 육지인 태원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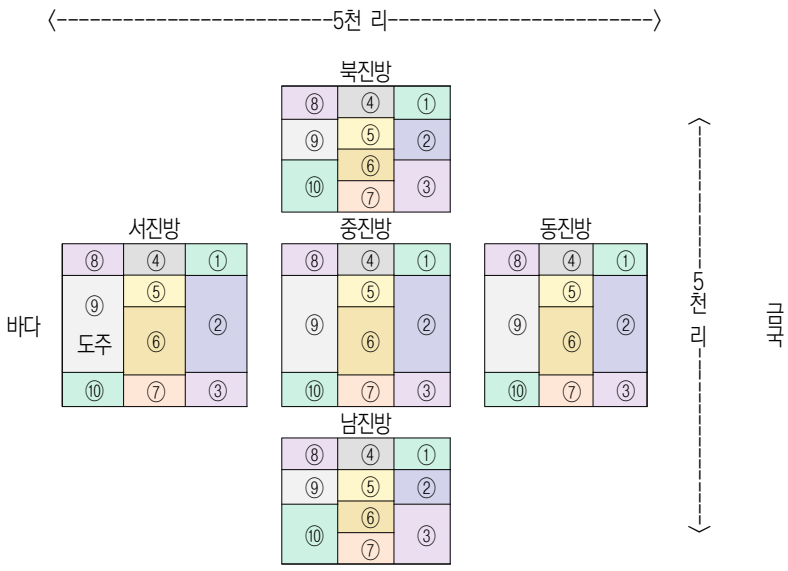
먼저, 임성 일행은 중원을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가운데 12개의 섬에 표착한다. 표착할 때마다 해당 섬까지의 거리와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섬에 대한 정보가 숫자 이미지로 제시된다. ①섬은 중국에서 8만여 리 떨어져 있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1,400여 리를 가면 ②영도가 나온다. 영도는 사방이 100여 리이고 주위에 350개의 섬이 있다(4傳). ②영도에서 ③섬까지는 3일 밤 4일 낮의 항해 거리이고, ③섬의 자령동은 해안에서 30여 리 들어간 곳에 있다(6傳). ③섬에서 다시 수일(數日) 항해 거리에 ④섬이 있고, ④섬에서 남쪽으로 200리 되는 곳에 ⑤섬이 있다(7傳). ⑤섬에서 ⑥섬은 10일 항해 거리에 있고, ⑥섬과 중원의 거리는 56만 7,493리이다(8傳). ⑥섬과 ⑦섬의 거리는 5일 항해 거리이고, ⑦섬의 둘레는 4-50리이다(8傳). ⑦섬에서 다시 수일 항해 거리에 ⑧여인국이 위치하고, 중원에서 ⑧여인국까지는 약 1년의 항해 거리이다. ⑧여인국에서 7-8일 항해 거리에 ⑨섬이 있다. ⑫섬과 ⑫″섬은 같은 섬이지만 3번을 되돌아오는데, 각각 5일 항해 거리, 6-7일 항해 거리, 10일 항해 거리를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같은 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⑫섬에서 35일 항해 거리 떨어진 곳에 육지인 태원이 위치한다[18].

태원의 내부 공간도 숫자를 통해 지리 지형이 구성된다. 임성 일행이 도착한 곳은 태원의 금국(金國)에 속한 서안국(西安國) 서진방(西鎭方) 도주(道州) 청릉현(靑陵縣)이다. 서안국은 사방이 5천여 리이고, 5개의 진방으로 되어 있으며, 각 진방에 10개 주가, 각 주에 10개의 군현이 있다. 숫자를 통한 공간의 구성은 공간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작품에서 제공

18) 작품에서는 27일을 항해하고 다시 8일 항해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 숫자를 참고하여 만든 서안국의 이미지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서안국〉



이와 같은 공간 구조는 태원 5국에도 적용된다. 공간 이미지에서 5라는 숫자는 오행과 관련되는데, 방향으로 치면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이고, 색상으로는 청백적흑황(靑白赤黑黃)이며, 각각 목금화수토(木金火水土)를 상징한다. 태원 5국도 동서남북중을 기준으로 목국, 금국, 화국, 수국, 토국으로 되어 있고, 각 국가가 5개 진방으로 나뉜다. 각 진방에 100개 주, 각 주에 100개의 군현이 있으며 크기는 사방이 수만 리이다(15傳).

태원 5국은 서안국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자기 유사성과 반복 순환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랙탈 구조를 유비하며 확장한 것이다. 서안국은 각 진방에 10개 주를 가지고 있는데, 태원 5국은 각 진방에 100개 주를 가지고 있으니 그 확장의 비율을 알 수 있다. 태원국 안에 수많은 서안국들이 들어있는 모

습이다. 이러한 숫자 이미지는, 서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거대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서안국이 태원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100분의 1정도의 미세 세계임을 드러낸다.

〈태원지〉는 숫자 이미지를 운용하여 도서(島嶼)와 태원이라는 비현실 공간과 상상적 지리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질서 안에 구현한다. 방위를 포함한 숫자 이미지로 공간을 구성하여 허구적 세계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가상의 세계에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한 세계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숫자는 강한 메시지성과 객관적 요약성을 환기함으로써 독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19] 현실 세계의 실재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은 〈태원지〉가 그리는 상상 공간이 바다 건너 어느 곳인가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지적・정서적 감각을 만들어낸다.

3. 일주(一周)의 상상력과 다원(多元)의 세계관

3.1. 일주의 상상력과 논리적・경험적 허구

인간의 인지는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고 안정적인 폐쇄 시스템이 아니라, 문자와 숫자로 외부화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 수시로 유동하며 구성되는 열린 시스템이다. 특히 숫자 이미지는 질료 단계의 '전(前)-개체적 실재'를 '개체적 실재'로 전이(轉移)시키고, '개체적 실재'로 형상화된 것들은 질료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정보의 성격을 갖게 된다.[20]

〈태원지〉는 숫자 이미지를 내세워 서사의 질서, 인물의 디테일, 상상 지리의 실재감을 구현했다. 숫자가 환기하는 논리성과 합리성, 사실성과 실재감은 작품에서 창조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인지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19) 이영수・이준웅, 「선거공약 메시지의 프레임과 숫자의 설득효과에 대한 연구」, 『의정연구』 21-2, 2015, 142-145면.

20) 시몽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와 형상 개념을 "전(前)-개체적 실재"와 "불일치하는 것들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를 산출하는 정보"로 재구성했다. 여기서는 두 개념을 차용하여 소설의 질료와 구체화된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이광석 외,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 2016, 34-35면.

다. 〈태원지〉의 세계가 숫자 정보로 설명 가능한 세계이고, 감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우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태원지〉의 세상이 '과학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정서적 감각을 만들어낸다.

〈태원지〉를 통해 독자가 과학적・논리적・정서적 감각으로 수용한 세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원의 지리적 위치가 지닌 성격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태원은 끝없이 멀고 먼 동쪽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목천자전〉의 곤륜산(崑崙山)이나, 〈서유기〉의 영취산(靈鷲山)처럼 세상의 끝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 ㉠ 미백(종황)이 물었다. "이곳에 표락하여 길을 모르는데, 여기에서 중국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56만 7,493리입니다." -중략- 그 사람은 또 대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을 뿐이었더니 즉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앞길에 사악한 요괴가 매우 많을 것이니 보중하십시오." 미백이 즉시 만류하며 말했다. "도사는 높은 이름을 알려주어 저의 속된 걱정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동해의 신 약(若)입니다."[21]
>
> ㉡ 미백이 즉시 부축해 일으켜 자리에 오르게 하고 말했다. "선옹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늘의 이치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서해의 광덕왕입니다." -중략- 이에 배에 올라 돛을 달고 돌아가는데, 그 섬은 보이지 않고 넓은 바다뿐이었다. 원래 섬이 없었는데 용왕이 신기한 술법을 써서 거짓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든 것이었다.[22]
>
> ㉢ 덕재(임성)가 말했다. "(중원)의 오강에서 배를 타고 동해로 들어와 지금 거의 1년이 되었다. 뱃머리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서쪽으로 돌이키지 않으려 했으니 생각건대 이미 거의 동쪽의 끝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 용왕이 이른바 서해라는 것은 어째서인가? 우리도 모르게 하늘이 저절로 서해에 돌아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배가 항상 동쪽을 향하고 방향을 돌리지 않

21) 한문본 〈태원지〉 31면, "美伯問曰, 飄落於此, 不知道里, 自此於中國, 道里幾何? 其人曰, 五十六萬七千四百九十三里矣. (…) 其人又不答而大笑已而矣. 卽起身曰, 前頭邪妖甚多, 善自珍重. 美伯卽挽曰, 道士願留高姓名, 以解我塵慮. 其人答曰, 吾東海神若." 번역은 임치균 외, 앞의 책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했다. 이하 같다.

22) 한문본 〈태원지〉 53-54면, "美伯卽扶起上座曰, 仙翁果何人歟, 能識天理乎? 其人懷慙低首曰, 吾西海廣德王耳. (…) 於是, 登舡掛帆而廻, 便不見其島, 浩浩大洋而已. 盖本無島嶼, 而龍王以神術佯設此容."

> 고 지금처럼 질주한다면 오래지 않아 서쪽 땅에 이르러 육지에 오른다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여러 장수가 모두 매우 기뻐하며 한창 의논하는데 종자가 갑자기 동남쪽 사이에 육지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아뢰니, 서쪽 땅이 아니겠는가? 덕재가 매우 기뻐하며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섬이었다.23)

㉠은 임성 일행이 ⑥섬에서 동해 수신(水神)을 만나는 장면이고, ㉡은 그 후 수십 일을 더 동쪽으로 항해한 후에 ⑪섬에서 서해 용왕을 만나는 장면이다. ㉢은 서해 용왕이 사라진 후 임성 일행의 반응이다. 임성은 의문이 들었다. 중원의 오강을 떠나 거의 1년 동안, 5일에 수만 리를 가는 속도로(12傳), 줄곧 동쪽으로 항해했으니 이치상 지금쯤이면 동쪽의 끝에 도착했을 법하다. 게다가 얼마 전에 동해의 수신을 만났고, 그로부터 향동하여 수십 일을 더 지나왔는데, 자신이 오히려 서해에 있다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곧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생각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저절로 내가 탄 배가 서해로 돌아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굳이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아도 결국 서쪽의 육지에 오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바다를 통해 계속해 동쪽으로 이동하면 어느 지점에선가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들어선다는, 일주(一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 말을 듣고 천문과 지리와 『주역』에 통달한 종황이 여러 장수와 함께 기뻐한 것은 그들이 임성의 말을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타당한 논리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낸다.

작품에 나타나는 일주의 상상력은 조선후기에 일부 학자들이 탐구한 비-유교적 이론과 비-중국적 경험을 서사적으로 수용한 결과이자 흔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둥근 땅 '지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사유인데, 아래의 글에서 이러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23) 한문본 〈태원지〉 54면. "德哉曰, 自吳江瓢入於東海, 至今幾及一年, 而舡頭每向東, 而不肯回西, 則想已幾至於東天之涯, 而龍王所謂西海云者, 何也? 無乃人雖不知, 天使之自然而回入於西海耶? 若然則舡每向東而不回, 疾走如是, 未久必至於西域, 若登陸地, 入還中國, 有何難哉?" 衆將皆極歡, 正商議之間, 從子忽報東南間, 陸地微見, 無乃西域地境耶? 德哉大喜, 使之向其處, 詣近視之, 乃一島也."

이 둥근 지세의 어루만지며	撫此穹窿
사방의 나라들을 돌아본다네	顧眄四國
깊숙한 방안에 한가히 앉아	閑居閨房
팔방의 온세상을 질주해보네	橫騖八極[24]

이것은 박규수(朴珪壽, 1807-1877)가 쓴 「지세의명병서(地勢儀銘幷序)」의 첫구절이다.[25] '둥근 지세의'는 박규수가 1850년 경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서양의 지도를 참고하여 360도의 구체(球體)에 경도와 위도를 그리고, 그 위에 만국의 국가를 표시한 후 이차척(里差尺) 등을 사용해 국가 간 거리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지구의(地球儀)이다.[26]

「지세의명병서」의 서문은 "대지가 둥근 형체로 되어있다는 것은 혼천가(渾天家)와 개천가(蓋天家)가 말한 바 있고, 주비설(周髀說)에 가장 상세하고 치밀하게 나와 있다. 다수의 선유(先儒)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그것을 터득했다. 그런데 서이(西夷)는 요란하게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한 바퀴 돈[遶溟海一周] 다음에야 그것을 알았으니 늦되고 우둔하지 않은가."[27]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박규수가 지세의를 제작한 배경에 혼천설과 개천설, 『주비산경(周髀算經)』 등 동양 고래(古來)의 지원설(地圓說)과 선유(先儒)의 논리에 서양의 세계 일주 경험[28]이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지구에 대한 박규수의 관심과 사유가 곧바로 〈태원지〉의 일주 상상

---

24) 한글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참고해 수정했다. 이하 동일.

25) 박규수, 『瓛齋集』 제4권 「雜著」, 「地勢儀銘幷序」.

26) 「地勢儀銘幷序」, "苟欲肖地勢於渾圓之體者, 是則于西夷地球之圖, 不能無取焉. (…) 及粵東夷寇之餘, 有邵陽魏氏源輯海國圖志之書, 蓋爲籌海審賊而作也. (…) 輒據其書作地勢儀一具, 其以三百有六十, 分經緯於渾圓之面, 而周布河海邱陵之象者, 坤輿之全體也, 環列國地. (…) 圈刻周天之緯度, 居于內而樞于兩極, 自南極以至于北極, 自北極以至于南極, 坤輿萬方, 無不受其量度者曰里差尺也. (…) 欲知南北之距者考緯度于里尺焉, 欲知東西之距者, 考經度于赤道而先切之以里尺焉." 『해국도지』는 1845년 이후 유입되었다. '지세의' 제작 시기는 김명호, 「박규수의 〈지세의명병서〉에 대하여」, 『진단학보』 82, 1996, 246면.

27) 「地勢儀銘幷序」, "大地渾圓之體, 渾天蓋天家言之, 而莫詳密於周髀之說, 先儒亦多以理推而得之, 乃西夷則紛紛然乘巨舟遶溟海一周而後知之, 不亦遲鈍乎哉."

28) 서양 국가가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일주(一周)한 일은 1522년 마젤란 일행의 항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규수는 이것은 『해국도지』를 통해 접했다. 김명호, 앞의 글, 253면.

력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근거로 할 때, 〈태원지〉의 창작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규수의 사유가 그 시대에 돌출한 것이 아니라 홍대용 등 18세기 실학자의 지원지전설(地圓地轉說)을 계승하고, 청초의 역산가(曆算家) 매문정(梅文鼎, 1633-1721)으로 대표되는 청나라의 고증학적 천문수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연구를[29] 고려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8세기의 지적 환경에 〈태원지〉가 동참했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태원지〉의 서사 세계는 숫자 이미지로 구성되는 인물과 지리, 끝없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항해, 그리고 어느 순간 일어나는 동해에서 서해로의 전위(轉位)를 통해 지구지원(地球地圓)에 대한 수학적 논리와 경험적 세계관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세계는 작품에 '논리적・경험적 허구'라는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3.2. 다원의 세계관과 역사적・문명적 재귀

동양의 문명은 오랫동안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천지관과 직방세계(職方世界)의 동심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30] 여기에서 화이관(華夷觀)이라는 문화적 시각이 도출되고, 화이관은 다시 합리와 비합리,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우열(優劣)과 대립의 이원론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문명관에 따라 공간에 대한 사유도 '중심-주변'으로 구조화된다. 주변은 다시 변방과 미지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중원-변방-세상 밖[世外]'의 관계를 이루고, 이것은 '중화-이민족[四海]-미지의 황무지[大荒]'와 대응된다.[31]

중화 중심의 세계에서 '주변'은 역사와 문화의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가 중심 세계가 필요로 할 때 비로소 무대 앞으로 소환된다. 중심 세계의 질

29) 김명호, 같은 글, 256-258면.
30)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 『한국고지도연구』 1-1, 2009, 6면.
31) 고대 신화서 『산해경』의 이미지를 다수 차용한 〈원형천하도〉도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라는 중심-주변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화 중심적 세계관을 계승한다. 오상학, 「조선후기 원형천하도의 특성과 세계관」, 『지리학연구』 35, 2001, 237-244면.

서에 위기와 혼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단으로 중심 너머의 세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주변의 소환은 주로 비-유교적 문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림부(上林賦)〉와 〈자허부(子虛賦)〉가 기록한 한나라 무제는 제국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변방 이국(夷國)의 요소들을 포획하여 원유(苑囿)에 전시했고[32] 〈목천자전〉의 주나라 목왕은 중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변방을 지나 세상의 끝인 곤륜에 이르러 서왕모를 만난다. 〈서유기〉의 당나라 황제는 인간세계가 혼탁해지자 현장법사를 변방의 서역 끝 영취산으로 보내 불경을 얻어오도록 하고, 〈숙향전〉의 숙향은 전란 등으로 현실의 질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버려진 후 10년간의 여정 끝에 곤륜산 서왕모의 요지연에 참석해 황제와 황후를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이처럼 신화적・상징적 성격이 강한 주변부의 서사와 이미지는 역사 중심의 중원 질서를 위해 복무한다. 세외대황(世外大荒)에서 발견되는 비-중심적 대상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중원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의적(祕儀的)인 수단으로만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은 중원의 질서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지만,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다시 세계 구조의 무의식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주변을 찾았던 중심부의 인물은, 질서회복의 힘을 획득한 후 다시 중심 세계로 귀환한다.

〈태원지〉도 중심-주변의 구조를 활용한 편유(遍遊)의 서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세계관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중심인 중원은 혼란한 세계로 그려지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천명(天命)'을 받은 주인공 임성은 배를 타고 세상 밖 먼 동쪽으로 항해를 한다. 임성 일행은 변방의 조선을 지나[33] 외해(外海)의 여러 도서를 건넌 후 세외대황에 있는 태원에 도착하여 천명을 실현할 힘을 얻는다.

그러나 〈태원지〉는 결말에서 중화 중심의 세계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천명을 성취하고 중원 회복의 힘을 획득한 임성이 중원으로 귀환하지 않는 것이

32) 정재서, 「苑囿, 제국서사의 공간: 漢賦에서의 정체성과 다성성」, 『중국문학』 38, 2002, 8-11면.
33) 처음에 임성 일행은 천명이 있는 동쪽이 '조선'인가 생각하지만, 이내 천명이 조선보다 더 먼 동쪽에 있음을 알게 된다.

다. 작품 안에서 임성은 반복해서 서쪽의 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종국에는 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돌아갈 시도도 하지 않는다. 〈태원지〉는 〈목천자전〉과 〈서유기〉 등 다수의 편유 서사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임성의 회귀 거부는 서사 전통상으로는 도교 신선설화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다.[34] 동시에 태원이 또 다른 중원임을 암시한다. 태원과 중원의 관계는 '두 여인국'의 설정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원은 둥근 세계를 한바퀴 도는 일주의 끝에서 만난 공간이다. 그 과정에서 임성은 동해에서 서해로의 전위를 경험하는데, 동서의 방향이 전환된 대략적 지점은 ⑧여인국이다. 이곳은 천 년을 한 해로 삼는[35] 구미호가 사는 곳으로, 『산해경』의 '해외서경'에 나오는 여자국을 전용한 신화적 공간이다.

⑧여인국은 임성이 중원을 출발한 지 1년 되는 즈음에 도착한 곳이다.[36] ⑧여인국은 중원 사람들에게 처음 발견된 낯선 장소이지만, 예악과 문물과 생활풍속은 중국과 같다(9傳). 차이점은 중원이 인간・남성・육지・인식 내의 공간이고, 여인국이 비인간・비남성・바다・인식 밖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삶의 수준과 문명의 수준은 같지만 질서의 기준이 다른 나라로서, 두 공간의 대립적이고 대조적인 속성은 ⑧여인국이 중원의 반대편에 위치한 지점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태원지〉에는 ⑧여인국 외에, 중원 사람과 ⑧여인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여인국(⑧″)이 언급된다. 임성 일행이 ⑧″여인국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⑧여인국은 못 들었다고 하자, ⑧여인국 사람도 중원 가까이에 ⑧″여인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 나라는 큰 바다 가운데 있어 중국과 거리가 멀고 조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원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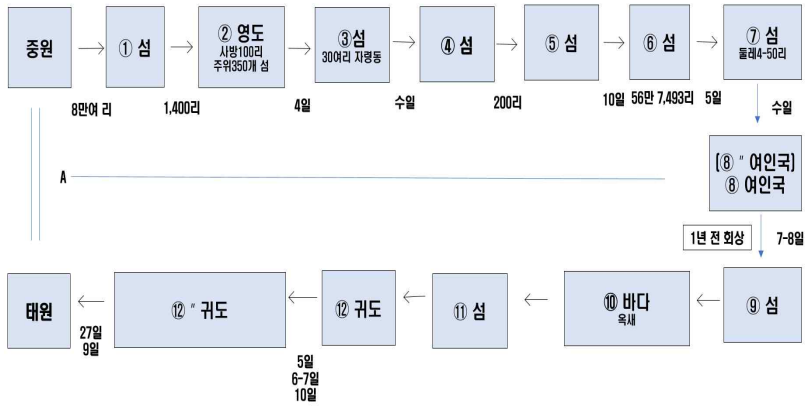
34)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153면.
35) 한문본 〈태원지〉, 45면, "以一千歲爲春秋"
36) 1년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의 기본 단위 중 가장 큰 수(數)이다. 하루, 한 달, 한 해[歲]를 기준으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한 해 이후는 10년 100년처럼 해[歲]의 축적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상당히 큰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수라고 할 수 있다. 임성이 세계의 반대편, 즉 둥근 세계에서 중원의 반대편에 도착하는 시간을 1년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⑧여인국은 조공질서, 즉 직방세계의 너머에 있는 나라이고 ⑧″여인국은 직방세계 내부의 나라인 것이다.

또한 ⑧여인국 사람은 자신들이 모두 절색인 반면 ⑧″여인국 사람은 키가 크고 용모가 추악하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중화 중심 미추관(美醜觀)의 전도(顚倒)가 담겨있다. 교화가 이루어진 조공 질서 안의 세계는 문명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교화가 미치지 못한 조공 질서 밖의 세계는 야만의 추함을 드러낸다는 인식을 뒤집은 것이다. 덧붙여 ⑧여인국 사람은 바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배를 잘 타며 물의 이치에 통달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언급은 ⑧″여인국과 ⑧여인국이 이름은 같지만 중심과 주변, 육지문화와 바다문화라는 속성으로 대비되며 미추(美醜)의 기준도 상반되는 대칭적 세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여인국'의 설정은 기존의 세계 인식 너머에 인간의 인식 범위로 포착하기 어려운 시공이 존재하고, 중심 질서와 대비적으로 대칭되는 '다른 질서의 동일 공간이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는 다원적 세계 상상력을 드러낸다.

그림2



'두 여인국'이 만들어내는 다원적 세계를 숫자로 구성된 둥근 세계의 일주 상상력과 결합하면 〈그림2〉와 같다. A선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둥근 세계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위편의 도서(島嶼)는 상대적으로 중원에 가까운 섬들이고 아래는 그와 대응되면서 태원에 가까운 섬들이다. ⑦섬의 원숭이 요괴와 ⑨섬의 지네 요괴가 대응하고 ⑥섬의 동해 수신과 ⑪섬의 서해 용왕이 대응한다. ③섬의 흰 쥐 요괴와 ⑤섬의 흰 뱀 요괴는 ⑫귀도의 바다잡귀와 짝이 되고, ②영도의 응천대장군은 ⑫″귀도의 제천대황・제지대황과 짝이 된다.[37] 그리고 육지인 중원과 태원이 대응된다. 태원은 다원적 세계에 존재하는 중원의 대칭 공간인 것이다.

중원과 태원은 각각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중심이다. '두 여인국'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내력과 질서를 가진 나라이다. 2020년에 방영한 드라마 〈더 킹: 영원한 군주〉의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다. 두 나라의 대비는 임성 일행이 처음 태원에 도착하여 만난 도사 평거이와의 대화에서 분명해진다. 평거이는 세상에 태원만 있다는 것을 알았지 중원은 처음 듣는다고 하며, 자신이 모르는 중원은 분명 괴이한 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임성과 종황도 마찬가지이다. 종황은 평거이에게 태원이라는 말이 괴이하다고 한다(14傳). 중원 중심의 질서에서 태원이 괴이한 세외(世外)이듯, 태원 중심의 질서에서 중원도 괴이한 대황(大荒)인 것이다. 중원이냐 태원이냐만 다를 뿐, 자기 중심의 세계관은 동일하다.

종황과 평거이로 형상화 된 중원과 태원의 지성(知性)은 서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먼저 평거이가 종황에게 중원의 고금 역대와 흥망을 묻는다. 종황은 태극부터 작품 속 현재인 원나라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 평거이에게도 태원의 고금을 묻는다. 평거이도 수만년 전 태원의 성립부터 현재의 5국까지, 태원의 내력을 이야기한다.[38]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中原		太原	
神話時代	太極, 天皇・地皇・人皇・有巢・燧人	太初	君主 없고 人倫 모름
	伏羲・神農・黃帝 少昊・顓頊・帝嚳・帝堯・帝舜	數萬 年 前	5星이 流配 法度・禮・8條 制定

37) 대응되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인물 이미지는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대조를 만든다.
38) 한문본 〈태원지〉, 67-69면.

夏殷周	禹・湯・文武, 伊尹・周公・召公	90餘 代世 혹은 7-80餘 代世 累千世	聖子聖孫이 繼承
春秋	桓公・文公・襄公・穆公・莊王 孔子・顔子・曾子 魯・衛・鄭・趙・蔡・宋・晉		
戰國	秦・楚・燕・齊・韓・魏・趙・吳 子思, 孟子, 功利說		
秦漢	始皇, 漢高祖, 明帝		
3國・晉	魏蜀吳, 諸葛亮, 秦, 宋齊梁陳		
隋唐・五季	高祖・太宗,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		
宋	太祖, 周敦頤・程顥・程頤・司馬光・張載・邵雍・朱熹 契丹・蒙古・遼・金, 文天祥		
元(현재)	오랑캐	5國(현재)	5星 軌道 變化 彗星・孛星 登場 妖孼・災難 發生

태원과 중원은 모두 육지의 공간이고,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공유한다. 그러나 임성이 도착하기 전에는 상호 연결되지 않고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두 나라가 지나온 시간의 물리적 길이는 동일하지만, 질적 속성이 다른 것이다. 중원은 고대의 신화시대를 지나 진한(秦漢) 통일 이후의 역사적 흥망을 거쳤다. 반면 태원은 수만년 동안 5성(星)이 지배한 신화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원의 현재인 5국의 혼란은 신화에서 역사로 전환되는, 중원의 하은주나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상에 대응되고, 임성의 건국은 신화에서 역사로 진입하는 시기의 제국 건설에 상응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임성이 중원으로 회귀했다면, 그의 정복은 제국의 건설이 아니라 원나라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왕조의 교체였을 것이다.

이러한 태원과 중원의 관계는 임성이 중원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유와 연결된다. 임성은 귀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이미 둥근 세상을 한 바퀴를 돌아서 자신이 출발한 서쪽 중원에 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원은 중원과 완전히 동일한 시공이 아니다. 중원과 태원은 두 여인국처럼, 대칭적 성격을 지닌 '다른 질서, 다른 차원의 같은 공간'이

다. 태원은 다원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중원이자, 역사적・문명적 재귀(再歸)가 이루어진 중원으로, 문명의 시간을 설정한다면 태원(太原)은 '원시(元始, the beginning) 중원', 즉 '태초의 중원'이라고 할 수 있다.[39] 이것은 〈태원지〉의 일주가 동일 공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유사 공간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한 통로임을 말해준다.

4. 〈태원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소설의 사유 실험

〈태원지〉는 숫자에 기반한 정보와 이미지를 활용해 서사를 구성하고 지리를 상상하며, 일주의 상상력과 다원의 세계관을 통해 논리적・경험적 허구와 역사적・문명적 재귀를 시도한다. 문학적 장면이 그 시대를 증언하는 하나의 객관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40] 〈태원지〉의 상상력은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18-19세기의 지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상상은 외부세계와 상호구성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박규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선후기 문인들은 추론을 통한 다양한 사유(思惟) 실험과 직간접적인 경험의 확장을 통한 지식체계의 변동을 수시로 체험했다. 18세기 이익(李瀷, 1681-1763)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일주의 상상력이 가능했던 경험과 수학적 고증을 강조한 논리를 증언한 바 있다.

> 바다가 지나는 것은 몸에 의대(衣帶)를 두른 것과 같아서 사방을 빙 두르며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리하여 서양의 학사가 배를 타고 서쪽 바다 끝까지 갔는데 결국 다시 동쪽 바다로 나오게 된 것이다. -중략- 이제 애유략(艾儒略 Giulio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를 살펴보면 "대서양은 지극히 커서 끝이 없으므로 서국(西國)에서도 바다 너머에 땅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백여 년 전 대신(大臣) 각룡(閣龍 Christopher Columbus, 1451-1506)이라는 자가 동양의 대륙을 찾아 도착했고, 묵와란(墨瓦蘭 Ferdinand Magellan, 1480-1521)이라는 자가 다시 동양에서부터 중국 대륙에 도착했으니, 일주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41]

39) 이 부분에 대해 지리적 중심은 원나라의 중원이지만 문명의 중심은 중원에서 태원으로 옮겨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연구에서 다룬 소중화주의적 관점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40) 신역사주의와 메타역사주의는 문학이 본질적으로 역사기술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 내가 계산해 보니, 갑자(甲子)년 자월(子月) 갑자일(甲子日) 자시(子時) 11월 초하루 밤이 동지(冬至)라면, 4,560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옛 역사에 인황씨(人皇氏)가 45,600년이라 했으니, 이것은 앞 수에 10을 곱한 것인데 그 이치는 알 수 없다. 또 천지의 수가 어찌 12회(會) 12만 9천 6백만에 그치겠는가? 술가(術家)들이 천체 별들의 전체 수를 추론한 데 불과하다. 12회(會)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무량수가 있을지 모른다. 이른바 선통(禪通)과 구두(九頭)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생각건대, 형체가 크면 수명도 오래가고, 지극히 작은 곤충은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죽는 것도 있고, 봄에서 가을까지 살지 못하는 것도 있다. 사람의 경우는 백 살까지도 살기도 하고, 나무의 경우 크기가 수십 배인 것은 수명도 수천 년까지 간다. 두께가 3만 리나 되는 땅을 인간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태양은 땅의 몇백 배가 되고, 하늘은 태양보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1원(元)이라는 것은 하늘의 짧은 운행이다. 아!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매문정(梅文鼎)의 『역학의문(曆學疑問)』을 살펴보고, 그 학설이 같지 않은 부분을 다시 상세히 고찰했다.[42]

이익과 같은 지식인에게 마젤란과 콜롬버스가 바다를 통해 지구를 일주한 경험, 매문정의 『역학의문』 같은 고증학적 천문수학의 논리 등은 지적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43] 또한 그것은 강대한 서국(西國)에 대한 전언(傳言)과 함께 중국 대륙과는 다른, 거대 문명권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중원과 태원의 관계를 이해했다. 역사와 크기에서 중원과 비견할 만한 태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방외기』 등을 통

41) 이익, 『성호사설』 권55, 「跋職方外紀」, "海之麗也, 如衣帶之被體, 四周而無不通, 故西洋之土, 航海窮西, 畢竟復出東洋. (…) 今按艾儒略職方外紀云大西洋, 極大無際涯, 西國亦不曾知洋外有地, 百餘年前有大臣閣龍者, 尋到東洋之地, 又有墨瓦蘭者復從東洋, 達於中國大地, 於是一周."

42) 『성호사설』 권1, 「三元甲子」, "余嘗算之, 甲子年子月甲子日子時十一月朔夜半冬至, 歷四千五百六十年而復還焉. 古史人皇氏, 四萬五千六百年, 則又十倍之矣. 其理不可鮮. 又天地之數, 豈止於十二會十二萬九千六百而已乎? 術家不過推及於合璧聯珠之會, 十二會之外, 又不知幾多無量數在也. 所謂禪通九頭之類, 邈不知其如何也. 竊嘗思之, 形大則壽亦長, 昆虫至微, 或朝生暮死, 或不知春秋. 至於人, 則壽或至百歲, 樹木長倍數十, 則有歷數千歲者也. 地之厚三萬里, 比人如何? 日大於地幾乎百倍, 天大於日不可計數, 所謂一元, 即天之一小運. 噫宜噤口不談矣. 今考梅文鼎曆學疑問, 其說不同, 更詳之."

43) 이익은 Euclid 『원론』의 한역본인 『기하원본』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또한 서명응은 『攷事新書』라는 수학서에, 매문정이 Napier's bones을 변형해 만든 곱셉인 책산(策算)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은아, 「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계산법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1, 2020, 28-32면.

한 “중원 밖 세계에 대한 인식확장”으로 해석한 것이다.[44] 이것은 태원을 서구 강대국 등에 대한 문학적 비유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조선후기 지적 운동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이다. 항해 일주와 천문수학 외에 조선후기 사유 실험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에는 고대의 세계관이 포함된다. 추연(鄒衍, 약B.C.305-B.C.240)의 ‘대구주설(大九州說)’이 대표적이다. 추연은 전국시대 제나라 음양가로, 『상서』「우공(禹貢)」에 나오는 9주론을 비판하며 유자(儒者)들이 중국 9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상의 81분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편 인물이다.[45] 우임금이 정비한 9주는 적현신주(赤縣神州, 중국)의 내부이므로 하나의 주(州)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중국 밖에 있는 적현신주 같은 것 9개가 9주라고 했다. 9주는 사이에 비해(裨海)가 둘러있고, 사람과 동물이 각 주(州) 사이를 왕래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을 이룬다. 이러한 것이 다시 9개 있고 그것의 외부는 대영해(大瀛海)가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천지(세상)의 끝이라고 했다. 즉 적현신주라고 부르는 중국 전체가 1개의 주가 되고, 이것과 같은 크기의 공간 8개가 더 모여 9주가 되며, 다시 이 9주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대주(大州)가 9개 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지식인은 변화하는 시대를 설명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대구주설을 소환했다. 그것은 학문적 측면에서 실측적 고증과 논리적 추론의 대상으로 재론되었다. 박규수는 「지세명의」 첫머리에서 “〈산해경〉, 〈목천자전〉, 진한의 위서, 추연과 만천의 말이 황당기괴하여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저기 끌어모아 과장은 했지만 반드시 의거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도 지리가(地理家)와 하거가(河渠家)들이 그 말을 채택하는데, 왕왕 딱 들어맞고 틀리지 않는다. 저들은 ‘신농씨 이전에 대구주(大九州), 주주(柱州), 영주(迎州), 신주(神州) 등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곤륜 동남쪽 1만 5천여 리가 신주(神州) 땅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팔색(八

44) 홍현성, 앞의 글, 297-298면.

45) 사마천, 『史記』 권74, 「孟子荀卿列傳」, “齊有三騶子. (…) 其次騶衍, 後孟子. (…) 以爲儒者所謂中國者, 於天下乃八十一分居其一分耳. 中國名曰赤縣神州. 赤縣神州內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 不得爲州數. 中國外如赤縣神州者九, 乃所謂九州也. 於是有裨海環之, 人民禽獸莫能相通者, 如一區中者, 乃爲一州. 如此者九, 乃有大瀛海環其外, 天地之際焉.”

索)〉과 〈구구(九邱)〉의 유문(遺文)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46]라고 했는데, 이 글은 대구주설이 19세기 지리가와 하거가 등 수리적 고증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게 채택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구주설은 정치적 측면에서 서구가 동점(東漸)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박규수는 "대구주라는 이름을 세워 서양 오랑캐가 오주(五洲)라고 말하는 것과 불교에서 사부(四部)라고 하는 말을 깎아내는 것이 옳겠다."[47]라고 하여, 서구와 불교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구주설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것은 서양의 오대주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지만,[48] 당시 지식인이 궁구했던 사유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후기 유가 지식인이 학문과 정치면에서 진행한 지적 사유 실험의 핵심은 기존의 주자학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수리고증학과 대구주설 같은 고대 음양가의 세계관이다. 이것은 이 시기의 사유 실험이 유교적 사고와 경합하는 비-유교적 사고에 대한 탐색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탐색은 〈태원지〉와 같은 소설적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작품에서 확인되는 숫자로 설계된 세상, 일주의 상상력, 대구주설과 유사한 국가 구조 및 다원 세계에 대한 내용은 〈태원지〉가 이 시기에 진행된 사유 실험을 서사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태원지〉는 지적 운동을 일방적·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태원지〉는 '천명'이라는 유교적 모티프와 다원 공간 등 비-유교적 세계관의 결합을 시도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연결을 욕망한다. 〈태원지〉는 현실의 천명을 이룩하기 위해 항해 일주를 시작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

46) 박규수, 『환재집』, 「지세명의」, "山海之經, 穆天子之傳, 秦漢緯書之文, 鄒衍曼倩之言, 慌惚譎詭, 洵不足取證, 雖然其傳會誇張, 亦必有所倚傍, 迄于今地理河渠之家, 旁採其說, 往往泒合而不差. 彼謂神農以上有大九州柱州迎州神州之等, 又或以崑崙東南萬五千里, 當神州之地, 得非有聞乎八索九邱之遺文者乎?"

47) 박규수, 위의 글, "大九州之名立, 而夷語之稱五洲梵語之稱四部, 刪之可也."

48) 이것은 박규수가 지세의를 만들 때 부득이 서구의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다. 박규수, 위의 글, "桴溪曰, 作地勢儀, 不得不用西夷之圖. (…) 或恐以其推測之精, 歷覽之廣, 謂言言事事, 皆應如是, 不知欺天罔人, 流禍無窮則可憂也. 故徵引浩博, 辨析明白, 始言地圖之理, 大九州之名, 自古中國所有之論, 非西夷之獨得, 終欲距詖息邪, 歸於正道."

경험 세계 내의, '지구 반대편 강대 문명국'에 대한 상상을 넘어선다. 물리적 동일 공간으로의 회귀를 넘어, 질적으로 다른 유사 공간인, 태초의 중원에 대한 재귀를 상상하는 것이다.

태초의 중원을 설계하기 위해 소환한 대구주설의 원리도 단순한 모방 차원으로 차용하지 않는다. 추연의 대구주설은 적현신주 내의 9주, 적현신주를 1개의 주로 했을 때의 9주, 그리고 전현신주가 포함된 9개의 주를 1개의 대주(大州)로 했을 때의 9대주로 확장된다. 이것은 〈태원지〉가 구성하는 공간 확장의 원리와 같다. 서안국의 5진방 10주 구조가 태원에서는 5국 5진방 100주로 비례적 확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주설이 세계를 완성하는 수로 9를 선택한 것과 달리, 〈태원지〉는 10을 세계 완성의 수로 보고 있다. 전자는 『주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수(數) 관념이고, 후자는 후대의 수리과학에서 보편화된 개념이다. 이로 보면 〈태원지〉는 대구주의 개념을 10진수의 수리질서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49] 또한 〈태원지〉는 대구주설이 시도한 공간의 팽창적 확장을 문명적 시간의 회귀와 연결시킨다. 대구주설을 새롭게 상상함으로써, 중국 밖에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태초의 중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출한 것이다.

이처럼 〈태원지〉는 소설이 조선후기의 역동하는 지적 환경과 사유 실험에 동참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소설은 시대의 문화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문화적 교양에 일방적으로 압도당하지도 않는다. 소설은 자기 시대의 문화틀이 재구성되는 현장에 참여하며, 논설과는 다른, 보다 확장성이 높은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유를 고민하는 실험의 장으로 역할했던 것이다.

5. 마치며

4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원지〉의 비례적 확장은 대구주의 상상력에 18세기 이후 서양의 비례식을 명시화하던 수리학의 분위기가 더해져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명응은 『攷事十二集』에서 비례의 원리를 '지금 있는 수를 이용해 지금 없는 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아, 앞의 글, 33-34면.

조선후기 소설 〈태원지〉의 위상은 그동안 18-19세기를 이해하는 문화틀의 하나인 주자학적 중화주의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유교적 사유는 비-유교적 사유와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한다. 유교의 주자학적 세계관에 기반한 '천명'은 전체 서사를 관통하지만 표층적 요소로 기능할 뿐이고, 구체적 세계 구상의 바탕에는 18세기 이후 지식인의 사유 실험에서 주목한 다양한 지적 흐름이 포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7세기 이후 전래된 서양의 항해 일주 경험, 고대 추연의 대구주설, 청나라에서 유행한 고증학적 천문수학 등이다. 이러한 지적 운동의 수용은 숫자 감각에 의한 서사 구성과 지리 상상, 일주의 상상력과 다원의 세계관으로 구현되었다.

〈태원지〉의 숫자 감각은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인상을 상상하도록 돕고, 과장된 인물 묘사도 논리적 이해 속에서 수용되도록 하여 허구적 존재에 실감성(實感性)을 구현한다. 또한 비현실적·상상적 지리에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한 세계상과 세계관을 제공하고, 〈태원지〉가 그리는 상상 공간이 어느 곳인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인지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특성은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서 본격화되는데, 〈태원지〉는 그보다 앞선 선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태원지〉의 일주 상상력은 지구지원(地球地圓)에 대한 수학적 논리와 경험적 세계관을 결합한 것으로서, 작품에 '논리적·경험적 허구'라는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동시에 동일 공간으로의 회귀를 거부하고 다른 질서를 가진 유사 공간으로 연결함으로써, 중원의 대칭적 다원 세계인 태원이 역사적·문명적으로 고대의 시간에 머물고 있는 '태초의 중원'임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임성의 건국에 제국의 건설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

임성의 제국 건설은 역사적 건국 서사에 대한 사족(士族) 문인의 문학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역사상의 건국 주체는 대다수가 황족을 포함한 귀족이나 무장이었고, 문인 학자는 책사나 승상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태원지〉는 사족 신분의 문인이 제국의 황제가 되는 상상을 문학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물론 〈삼국지연의〉의 인물 구도를 차용하여 임성과 종황을 유비와 제갈공명의 관계에 빗대고 있지만, 황족이었던 유비와 달리 임성은 문인

층 출신인 것이다. 이것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조선의 소설들, 특히 〈태원지〉와 유사한 시기에 유행한 영웅소설에서 거의 모든 주인공의 성취가 제후왕에 머무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 이 점은 〈태원지〉에 담긴 사족 문인의 욕망을 드러내며, 유교적 관점으로 해석해 온 조선후기 문인층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도록 자극한다.

이상 〈태원지〉가 구현한 상상력에는 당시에 경합하는 지식장의 모습과 변화하는 사족 문인의 욕망이 발견된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틀에 긴장을 유발하는 사유 실험과 욕망을 서사적으로 전용한 시도로서, 당연하게 여겨온 조선후기의 문화적 교양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박규수, 『瓛齋集』, 고전번역원.
사마천, 『史記』, 영인본.
이익, 『성호사설』, 고전번역원.
〈창선감의록〉, 국립중앙도서관.
『고려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강문종, 「한문본 〈태원지〉 연구」,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145-175면.
김명호, 「박규수의 〈지세의명병서〉에 대하여」, 『진단학보』 82, 1996, 237-262면.
김인회, 「〈태원지〉 연구사」, 임치균 외, 『〈태원지〉의 종합적 연구』, 역락, 2018, 25-46면.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5-69면.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 『한국고지도연구』 1-1, 2009, 5-18면.
_____, 「조선후기 원형천하도의 특성과 세계관」, 『지리학연구』 35, 2001, 231-247면.
오화, 「〈태원지〉와 〈경화연〉의 해양 탐험담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2014, 265-294면.
___, 「한중 고전소설의 해양체험담 비교 연구-〈태원지〉와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를 대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7, 1-230면.
이광석 외,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 2016, 3-305면.
이영수・이준웅, 「선거공약 메시지의 프레임과 숫자의 설득효과에 대한 연구」, 『의정연구』 21-2, 2015, 134-164면.
이윤석 교주, 『홍길동전』,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14, 1-269면.
임치균 외 역해, 『역주 태원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4-495면.
임치균 외, 『〈태원지〉의 종합적 연구』, 역락, 2018.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5-384면.
_____,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11-134면.
정일권, 「빅뱅 우주론, 양자물리학, 그리고 문화의 기원—존 폴킹혼과 르네 지라르 이론의 빛으로」, 『한국개혁신학』 44, 2014, 178-201면.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5-374면.
정재서, 「苑囿, 제국서사의 공간: 漢賦에서의 정체성과 다성성」, 『중국문학』 38, 2002, 8-11면.
최은아, 「18세기 조선산학서의 대수 영역에 나타난 서양수학 표현 및 계산법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1, 2020, 25-44면.
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태원지〉-」, 『고소설연구』 33, 2012, 215-249면.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2005, 3-94면.
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91-319면.

【Abstract】

Imagination around the world and a multi-dimensional worldview of 〈Taewonji〉
—By adding an opinion on the thought experiment of old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Soo-Youn*

In the novel 〈Taewonji〉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fucian and non-Confucian thought work mutually. Although Confucianism's concept of 'destiny [天命]' penetrates the superficial narrative, the concrete world conception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voyages in the West, the Daegu theory of the ancient Chuyeon, and the archaeological astronomy mathematics of the Qing dynasty, which has been focused on intellectual experiments since the 18th century, are getting involved. The acceptance of this intellectual movement is realized through narrative composition based on a sense of number, geography imagination, imagination around the world, and a multi-dimensional worldview.

〈Taewonji〉 is active in the use of numbers to the extent that it is said to be a novel made up of numbers. It embodies figures and imaginary geography with numerical information and images. This provides realistic impressions and logical realism to fictional characters and virtual worlds. 〈Taewonji〉 is a scene of natural displacement from the East Sea to the West Sea during the voyage, and by narrating the imagination of the circumnavigation, it reveals the mathematical logic and empirical worldview of round earth, and recognizes fictional works logically and empirically. However, the circle of 〈Taewonji〉 is not a simple physical cycle, but is connected to a symmetrical plural world that moves to the same space with a different order and character. Taewon, which arrived in this way, is a symmetrical plural world of Jungwon, and has the character of 'the beginning of the Jungwon', which is historically and civilly located in ancient time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Women's Univ.

〈Taewonji〉 reflects the competitive knowledge field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e attitude of narrative thought experiments that do not passively accept the intellectual movement is also found. 〈Taewonji〉 provides an opportunity and experience to reexamine the cultural framework of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was taken for granted, by narratively adapting the thought experiment that causes tension in the existing cultural framework. It also shows the circumstances in which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participated in thought experiments with an open attitude to the dynamic intellectual environment. A novel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the cultural framework of the times, but it also does not unilaterally accept the existing cultural culture. The novel participates in the field where the cultural framework of its time is reconstructed, and can serve as a place of experimentation to contemplate new thoughts through highly scalable popular writing.

Keywords: 〈Taewonji〉, imagination of round the world, multi-dimensional worldview, Number sense, imaginary geography, logical fiction, historical recursion, thought experiment.

접수일: 2022.03.29.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23.